

환영사

우창록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기업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작업은 우리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선동적인 반론에 밀려서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주제로 치부되었습니다.

오늘 별로 인기가 없을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되새겨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제안했을 때 찬성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었나요? 온 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했던 야당의 지도자들도 있었지요.

저는 리더는 미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미래 가치를 내다본 박 대통령은 그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야 가릴 것 없이 절대 다수가 반대하였지만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주저 앓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세수를 늘리고 국부를 키우게 된다는 미래가치를 위해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용기를 가진 리더그룹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제를 하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인기가 없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상속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개편안을 발표해 주실 최재형 의원님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세제 개편과 아울러 회사법도 정비하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적인 기업 경영 행태를 규제하여 경영의 선진화를 추동할 제도 개선의 의 제안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업 경영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정상화 되고, 각종 지표들이 우리 국력에 걸맞게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발걸음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 사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호준입니다.

먼저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최재형 의원님과 굿소사이어티 우창록 이사장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5→20년) 등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여러 과제들이 개선·반영된 것을 통해 제도가 진일보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입니다.

영국이 현행 40%인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했으나, 방향을 틀어 상속세 40%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 계획에 넣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율 인하 또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족쇄로 작용하고, 심한 경우 기업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던 가족은 소득원과 일자리 상실로 생존 및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기업은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자산이 소멸하게 됩니다.

일자리 감소 역시 국가 경제 차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기업승계는 비단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있으면 합니다. 중견련도 세제개편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 열린 뜻깊은 세미나를 축하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